

So our coming of age forces us to a true recognition of our situation vis-à-vis God. God is teaching us that we must live as men who can get along very well without him. The God who is with us is the God who forsakes us (Mark 15:34). The God who makes us live in this world without using him as a working hypothesis is the God before whom we are ever standing. Before God and with him we live without God. God allows himself to be edged out of the world and onto the cross. God is weak and powerless in the world, and that is exactly the way, the only way, in which he can be with us and help us. (Bonhoeffer, Letter of July 16, 1944.)

Before God and with him we live without God. 줄여서 보통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 라고 말하는데, 본혜퍼가 옥중서신에서 남긴 말이다. 우리들 말로,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하느님 없이...라고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5-17 장은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준다. "예수 없이, 예수 앞에서."

A. 포도나무 비유

1.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 예수=나무; 제자들=가지. 불가분의 관계. 과실/실과 (Q. 무슨 과실?=> 사랑)
- 이사야 5 장

2. 세상과 구별

- 세상(, 요한복음 78 번)은 지배체제. 월터 윙크,
 - "'세계(world=*kosmos*)라는 단어가 뜻하는 영역이 너무도 넓어서, "세계"라는 말이 소외시키고 소외된 정신(*ethos*)을 뜻하는 신약성경의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로서는 차라리 "체제(system)"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다고 본다(『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98).
 - "체제(세상: system)가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체제(세상: system)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요 7:7). (Ibid., 98-99).
- 친구(예수) vs. 종(세상) => 사랑의 법 (vs. 다스림/지배 => 막 10:45)

B. 보혜사—진리의 성령: 두 가지 역할

1. 세상(*κόσμος*)을 책망(*ἐλέγχω*, "show fault, prove wrong", 요 16:8. Cf. 3:20; 8:46)=> 일방적 선언 (cf. 14:17,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함.)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함. Q. 예수를 믿는다 함은? (=> 요 6:29, 예수는 하느님의 일을 함.)
- 의에 대하여. 세상이 의(righteousness)에 대해 잘못된 판단(un-righteousness)을 내림. 예수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의"라고 여겼는데(16:2), 예수가 하느님께 갔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예수의 의로움을 밝힘(vindication). 여기서 하느님은 의의 원천(source of righteousness).
- 심판에 대하여(16:11=>12:31). Q. "이 세상 임금"(ὁ ἄρχων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이 누굴까? 지금은 어느 개인/황제를 말할 때가 아님.
- 주의할 사항. 예수/성령은 세상의 잘못된 판단—곧 예수의 길/진리/생명이 잘못됐다는 믿음—을 책망할 뿐, 세상 자체를 심판하자는 것이 않는다. 오히려 세상(*κόσμος*)을 구원한다(요 3:16; 12:47. See also 윙크, 117-148)

2. 성령과 예수의 이름

- 성령은 진리의 영(14:17; 15:25 ; 16:13)
-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15:7, 16)
 - 무엇을 구할까
 - "예수의 이름으로"가 시사하는 바는? (signature)

결론. 예수 없이, 예수 앞에서

- 예수 없이 (예수의 혈과 육=>①“보는고로 믿느냐?”; ②하느님은 세상이 만들어 준/이해하는 그런 하느님이라야 믿느냐? 가치가 있느냐?)
- 예수 앞에서=> 예수의 정신을 산다.

생각해 보기

1. 영생은 하느님과 예수를 아는 것(요 17:3)... 앵? (뭐야 이게.. cf. 15:21; 16:3)
2. 내가 (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